

희년 맞은 강서교회, 인도 첸나이에 15번째 선교지교회 건축... 국내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

희년을 맞이한 강서교회(순환모 목사)가 해외 선교지교회 건축과 국내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강서교회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1시, 첸나이 인근 지역에서 15번째 선교지교회인 사도크리스천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다. 사도크리스천교회는 현지에서 사역 중인 존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원호택 장모와 하영애 권사의 헌신으로 건축했다.

이번 교회 건축은 40도에 이르는 현지의 무더위 속에서 진행됐으며, 최소한의 건축업체 도움만 받은 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이어졌다.

특히 봉헌예배를 앞두고 존 목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는 위기도 있었지만, 예배 전날 퇴원해 직접 참석하면서 현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눈물을 안겼다.

존 목사는 많은 수술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감사의 간증을 전했다.

이날 입당예배는 선종영 장모의 기도과 순환모 목사의 설교, 강서교회 선교팀의 특송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순환모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전하며 "사도크리스천교회 역시 받는 교회를 넘어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강서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존 목사의 병원비 일부를 전달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사도크리스천교회는 박광수 선교사의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로, 강서교회는 건축 과정 가운데 헌신한 박 선교사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박 선교사가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목회자 300여 명 모두에게 회고 썬집의 성경책을 선물하였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강서교회 국내 선교부 주관으로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도 시작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은 충남 당진 소재 새생명성결교회(윤성균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에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분당 자봉 누수공사, 교회 외부 배수로 공사, 현관문 교체, 식당 연결 바닥공사 및 주차장 개선공사 등을 실시했다.

윤성균 목사는 "교회 노령화로 인해 업무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강서교회의 섬김을 통해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큰 감

동을 받았다.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기쁨을 마련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서교회는 2015년 이후 매년 해외 선교지교회 건축과 국내 농어촌교회 환경개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에는 15개 교회를 건축했으며, 16번째 교회는 미얀마에 건축 중이다. 또한 17번째와 18번째 교회 건축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선교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13개 농어촌교회를 리모델링했으며, 내년 진행될 14번째 리모델링 대상교회의 신청도 받고 있다.

강서교회 순환모 목사는 "선교지교회 건축이나 농어촌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한 교회와 선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새생명성결교회

선교기획

진화하는 이단 종교

최근 이단 종교들이 정통 기독교와 상반된 비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마혹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 부활 등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성경의 권위 부정한다.

이단들은 성경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특정 교리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성경 외에 교주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별도의 경전이나 교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만이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졌다고 고집한다.

둘째,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

이단 지도자들은 기존의 진리 체계와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의 진리가 부패하여 자신들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고 강변하며, 과거 천부교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성명, 구원파 권신찬, 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등이 이러한 직통 계시와 영적 비밀을 사칭한 대표적 사례다.

셋째, 교주를 신격화한다.

이단 종교는 특정한 교주의 강력한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들은 살아있는 교주를 재림 예수 혹은 선지자로 신격화하며,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든다. 현재 한국에는 자신을 재림주라 자칭하는 자가 약 40명에 이른다.

넷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인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주가 제시하는 교리와 요구사항에 순종하고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를 중요한 인물로 높이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공박하여 예수의 가치를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여섯째,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약하다. 이단들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인다. 일례로 몸돈교는 초기에 일부다처제를 주장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를 숨겨서 금지하는 등 도박적 기준이 부재하다.

일곱째,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입박한 종말의 날짜를 정해두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특정 구원자 수에: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한다. 다미선교회(1992년), JMS 정명석(1999년), 신천지 이만희(1984년), 하나님의교회(1988·1999·2012년) 등이 날짜를 예언했으나 모두 불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다.

여덟째, 사후 천국보다 가시적인 천국과 지상천국을 강조한다.

사후 천국보다 한국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가시적 종말론을 펼친다. 이들은 『정감록』이나 『객암유록』 같은 민간 비결서를 인용하여 재림주가 한국인이며, 특정 지역(계룡산, 과천 청계산 등)이 심판을 면할 도피처(십승지)라고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여후와의 증인 역시 1914년 지상왕국 실현을 주장한 바 있다.

아홉째, 조직을 외부와 단절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사회의 불안정성을 틈타 교인들에게 기존 교회 탈퇴와 가정·사회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한다. 이들은 집단생활을 하며 내부적으로는 강한 친밀감을 유지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 도피주의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폐쇄적 구조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어떤 단체가 위 특정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늘 경계해야 한다. 이단 종교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데 있다. 성도들은 이들의 진화하는 포교 방식과 그릇된 교리 체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수환 목사

성경대학교 신학과 객원교수
수지서사랑교회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해외여행 시 의약품 소지 주의

최근 우리 국민이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지병 치료약을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해외 공항에서 입수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물품 압수에 그치지 않고 조사나 구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국가별 약물 반입 규정 확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감기약·알레르기약·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입 가능한 의약품 종류 및 수량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상세 규정

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영문 처방전 소지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전문의 약품을 소지할 경우, 해당 약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양과 며칠 정도의 여유 분만 챙기는 것이 좋다.

3. 약통 그대로 소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성분과 이름이 명확히 적힌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약은 세관의 의심을 받기 쉽다. 수하물로 부칠 경우 압수 시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내에 직접 휴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주의사항>

2026년 영암신학사상연구소 6월 학술세미나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

2026년 6월 1일 (월) 09:00-12:00
학술정보관 6층 아람국제기념회식실

1부 예배

- 사회: 박전수 교수(영암신학사상연구소 소장)
- 설교: 김성진 목사(이사장 직무대행)
- 축사: 정희석 총장

2부 학술세미나

- 사회: 윤영훈 교수
- 발표1: 서민수 박사(Ph.D. cand.)
성경모든의 어머니 피비 갈머(Phoebe Palmer)의 재단신학
- 발표2: 김영택 교수(영암신학사상연구소 부소장)
법복을주의 교회의 신학 패러다임: 사중복음과 예성신학

문의: 김형원 전도사 010-2394-0253

축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교 120년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105회 총회 서기

회장 박병두 목사
행복한목양교회

부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장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천지방회